

일본, 화학단체 통폐합 작업 본격화

화학공업협회 중심 재편작업 ... 경쟁력 회복과 정보기능 강화 위해

일본 화학관련단체들의 재편 및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일본화학공업협회(회장 中西宏幸)를 중심으로 화학 관련단체들의 재편 및 통합구상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화학산업이 환경·안전문제와 글로벌화와 함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재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관련단체의 재편·통합을 통해 화학산업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정책 제시와 폭 넓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화학공업협회는 먼저 화학단체의 통합을 통해 화학산업계의 공통적인 기능을 집약해 화학제품 관련 개별 전문기능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정보시스템과 오피스, 즉 인프라의 통합을 꾀하는 등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화학산업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해 기업수준의 전략을 재구축하고, 관련단체의 재편·통합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단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2년 화학기업·관련단체의 의견을 집약했고, 2003년 초부터는 기초적인 수준의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화학기업 수준에서는 단체개편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타임라인의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일본 화학산업단체의 통합 움직임은 화학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환경, 안전, 위생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함께 화학제품 시장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경쟁격화, 그리고 국민들의 화학제품·물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해를 넘길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화학기업은 시장경쟁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재구축에 더욱 힘을 쏟고, 화학단체는 화학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화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분리돼 있어 양적이나 질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태로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일본화학공업협회와 일본석유화학협회 등 규모가 큰 화학기업 및 화학산업단체가 가입돼 있는 큰 관련단체가 중심이 돼 화학산업의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많은 단체를 보유함으로써 조직의 중복, 비효율성, 화학산업 전체의 체계적인 발전동력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업종별 대응이 불가능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과제·테마의 재검토에 의한 조직·체제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산업단체 재편·통합 구상은 화학산업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단체의 역할·사명을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①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②소비자와 미디어, 정책 그리고 NGO 등에게 제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며 ③플라스틱 등 하류부문과의 연대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화학산업계의 공통기능을 일원화하고 IT시스템과 오피스의 통합을 꾀하는 한편, 기존단체의 개별제품에 관한 전문기능과의 효율적인 연대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에 따른 화학산업의 새로운 정보 제공거점으로서의 재편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20>